

협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에 협회 2층 교육장에서 전·현직 지회장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협회의 모태였던 대한전기주임기술자 협회가 1963년 11월 29일 창립된 지 44년이 되는 해이며 법정단체로 재 탄생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창립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이희평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 동안 협회 발전

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협회 발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창의적인 생각과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혁 협회 원로자문위원장(前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존 고트먼 박사가 주장한 행복을 만드는 '마법의 비율(Magic Ratio) 5:1' 법칙을 우리협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나'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5번 생각하자는 뜻을 전함은 물론, 우리 협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 협회 우수 직원 수상



▲ 협회 발전방안 수상

협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이모저모

이날 행사 중 하나인 우수직원 포상에는 광주·전남지회 김지경 사무국장, 서울남서지회 허정숙 직원, 서울북서지회 김미애 직원, 중앙회 이창환 과장, 황혜숙 대리, 손영선 직원이 영예의 수상을 했다.

또한 지난 8월 '회원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공모전' 수상식도 함께 치러졌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창진업(주) 백형중 회원과 협회 박병은 대리가 수상을 했다.

한편, 1996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법정단체로 출범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10년간 역사의 발자취를 서술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43년(10년)사」를 수차례 편집과 수정을 거쳐 발

간하며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월 14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를 전국21개 지회의 지회장 및 간부 200여명이 참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협회가 그 동안 전력기술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업적과 협회의 발전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